



레드-올랜더스 연습 모습.

# 100년 전 근대문명의 비판적 성찰 메시지

### 타고르 상징희곡 '레드 올랜더스' 국내 첫 공연 20~21일 오후 3시 ACC 예술극장2 무대 올라

100년의 시간차를 넘어 현재에도 유효한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동시대 연극으로 선보인다. 오는 20~21일 오후 3시 ACC 예술극장2 무대에 오르는 '레드 올랜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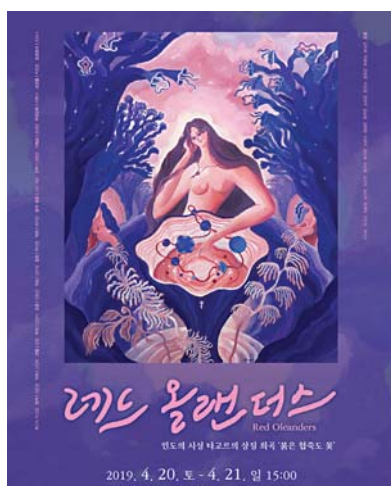
연극은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상징 희곡 '레드 올랜더스(Red Oleanders)'의 국내 최초 제작 작품이다.

'레드 올랜더스'는 타고르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집필한 희곡으로 근대 문명 시스템 안에 갇혀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

아가는 광부들과 그들이 사회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갈망하였기에 맞이한 역설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두운 골에서 영혼없이 금을 찾아 땅을 파는 광부들과 이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세계를 영위하는 관료, 사제, 학자가 사는 곳에 붉은 협죽도 꽃을 두른 '난디니'와 그녀가 기다리는 '룬존'을 통해 사람들에게 잊힌 아름다움과 희망을 꿈꾸게 한다. 붉은 협죽도 꽃은 레드 올랜더스의 우리말이다.

타고르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소통하지 않는 것, 인간이 창조력의 원천인 자연과 더 이상 교감하지 않는 것을 인류문명의 위기로 보았다.

극작가 교연옥의 각색과 김정희의 연출

은 타고르의 상징적이고 함축된 대사를 익살스러운 표정, 과장된 움직임, 유쾌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하며 인간군상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자유를 향한 기다림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레드 올랜더스'는 ACC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진행된 '타고르 : 범 세계주의자의 예술과 사상' (2016.6.10.~2017.6.30.) 전시와 연계 특강 '붉은 협죽도 꽃, 타고르가 그린 삶의 서사시'를 계기로, 세계적인 아시아 거장의 희곡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이다. 작품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낭독공연으로 관객들과 교감한 바 있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1만5,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가능.

문의 1899-5566. /이연수 기자

## 새로운 음악문화를 꿈꾸며...

### 광주작곡마당, 제2회 정기연주회 27일 김넷과서 회원 5명 창작무대

광주작곡마당(대표 이승규)이 오는 27일 오후 6시 광주문화공간 김넷과서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작곡마당은 '새로운 음악문화를 꿈꾸는 작곡가들의 모임'이라는 모토로 출발했다. 전공과 무관하게 작곡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꿈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 음악 전반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 예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는 모임이다.

고 있다. 전공, 장르를 초월해 자유로운 음악적 실험을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청중들과 소통·교감의 장을 만들어내 지역 창작음악 저변확대와 보편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광주 작곡마당 회원 5명의 무대로 채워진다. 이승규 대표의 사회와 작곡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창작곡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게 기획됐다.

국현은 가곡 '초록별 지구', '지금 이대로 그냥 그대로', '젓가락 타령'을, 심효정은 4중창 가곡 '비빔밥', 이승규는 첼로스나타 1번 '이강하리준-초월', 김정은은 '벚꽃 아래 이별', '따뜻했어, 지혜', '수고하셨습니다'를, 최현아는 중창곡 '빛나다가', '평화를 그리다'를 발표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 /이연수 기자



은암미술관 아동프로그램 진행 모습.

## 가족과 함께 나주박물관으로 떠나요

### 1박 2일 달빛 역사여행 마한 역사캠프 운영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봄학기 마한문화 아카데미 진행과 함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나주박물관으로 떠나는 1박2일, 달빛 역사여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1박2일 동안 박물관에 머물며 영상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으로 4~9월 중 월 1회 운영한다.

박물관 야외 체험장에 마련된 카라반(캠핑카)과 야영 데크(텐트)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간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물관 주변에 자리한 고분을 어두운 밤에 탐방하는 고분 산책과 마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실 탐색을 통해 역사를 배운다.

나주 소반을 만드는 김춘식 장인과 함께 소반도 만들어 보는 등 가족의 협동심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초등학생 이상)가 포함된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카라반 5대와 텐트 데크 5동이 마련되어 있어 회당 10가족이 참여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해당 날짜에 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국립나주박물관은 또 문화나눔 교육의 일환으로 문화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 지역 어린이(학교)



국립나주박물관 야외 체험장에 마련된 캠핑장 전경. /나주박물관 제공

나 다문화 가족(단체) 등을 대상으로 '1박2일, 뮤지엄 스테이'를 진행한다. 4~9월 중 화~금요일에 참여 가능하며 박물관에서 캠핑을 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전화로 일정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330-7822. /이연수 기자

## 오늘 점심은 누구누구 도시락

### 은암미술관, 초등생 대상 주말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20일부터 광주문화교육기반구축 공모사업-주말예술배움터 '오늘 점심은 누구누구 도시락'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초등학교 4~6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재료를 내가 직접 만드는 작품들을 예술도시락으로 만드는 체험 활동이다. 첫 시간에는 작품을 담기 위한 도시락 틀을 제작하고, 내가 만든 다양한 작품이 도시락 반찬이 된다.

매주 진행되는 자신의 취향을 담은 작품들은 칸칸이 결과물을 담은 도시락의 형태로 완성된다. 각 기수별로 총 12회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요리하기, 국

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협업체 협합습, 판소리 선생님과 만남 등이 포함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담은 예술도시락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고 협동하며, '나'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7일은 4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2기는 7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여비용 무료.

접수 및 문의는 062-231-5299. /이연수 기자



'한강에게'

## 광주극장서 21일 '한강에게' 관객과 대화

### 제70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장 '러브리스' 개봉

지난 4일 개봉해 관객들의 공감과 극찬 속 입소문이 거세지고 있는 영화 '한강에게'의 박근영 감독과 주연을 맡은 강진아, 강길우 배우와 관객과의 대화가 오는 21일 오후 3시 광주극장에서 영화 상영후 마련된다.

극장가에 '시(詩)'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한강에게'는 뜻밖의 사고를

당한 남자친구, 끝내지 못한 첫 번째 시집, 추억과 일상을 해매고 있는 시인 진아의 한 편의 시 같은 영화다.

광주극장은 또 제70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장 수상작 '러브리스'를 개봉했다.

이혼을 앞둔 부모가 서로에게 자신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열두 살



'러브리스'

소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시작되는 영화 '러브리스'는 러시아의 거장 안드레이 즈비야긴 체프 감독의 신작이다.

오는 25일 개봉하는 다큐 영화 '안도 타다오'도 미술 애호가들의 기대작이다. 공간에 자연을 결합한 건축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는 건축의 거장 안도 타다오의 일대기를 그렸다.

영화는 안도 타다오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빛의 교회', '혼푸쿠지(물의 절)', '지중미술관'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을 아름다운 영상미에 담아내 건축에 임하는 안도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관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혹한 세계에서 '거리의 여자'로 살아가는 나나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누벨바그의 살아있는 전설 장 뤽 고다르 감독의 독창적인 연출력과 그의 뮤즈 안나 카리나의 독보적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비브르 사비', 폴 슈레이더 감독과 에단 호크, 아만다 사이 프리드의 열연이 조화를 이루며 세계유수의 매체에서 호평을 받은 '퍼스트 리폼드' 등 상영작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2-224-5858. /이연수 기자

## 북구청소년상담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 호남 유일 4년 연속 선정...8월 9~11일 진행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황수주)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전문 가족치유 프로그램인 가족치유캠프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가족치유캠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의 일환으로 북구청 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광주는 물론 호남에서 유일하게 올해까지 4년째 운영 중이다.

가족치유캠프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부모·자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보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용조절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법을 배우는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동기를 이해하고,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부모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캠프가 끝난 후에도 사후 모임을 통해 가정내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규칙을 점검해보고 도움을 주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수주 센터장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갈수록 저연령화 되는 만큼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모·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치유캠프는 청소년 1명과 부모 혹은 보호자 1명이 함께 참가해야 하며, 참가비는 가족당 3만원(1인당 1만5,000원)으로 취약계층 가족은 증빙서류 제출 시 무료다.

신청은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2-268-1388)로 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